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255

JCCT 2023-9-31

念齋 宋太會 서화의 연원과 예술세계 Yeomjae Song Tae-hoe Origin and art world of calligraphy and painting

김도영*

Kim Doyoung*

요약 고창 서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 사호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의 제자이자 한때는 양자였던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 1872-1941)가 고창으로 이주하며 초석을 다졌고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염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조선 말기와 근대기의 학자이자 서화가로서 고향인 화순과 고창을 중심으로 한문과 서화 교육자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며 고창 서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16세에는 진사시에 합격(동몽진사)하여 최연소로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그는 구한말 부정부패의 만연과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여 세상을 등지고 낙향하여 서화로 시름을 달래었다. 고창과 전주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민족정신과 역사를 배양시키기 위해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염재는 사호 송수면(宋修勉, 1847-1916) 화풍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강건한 필치의 산수화를 그렸고, 화조화와 사군자 등 남종문화의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다. 특히 한국적 풍토미를 바탕으로 한 근대지향적 실경산수의 구현과 더불어 신문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초창기 근·현대를 아우르는 대표적 서화가로서, 근·현대 고창 서화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세계적 화가 고암 이응노(顧菴 李應魯, 1904-1989)는 10대 후반에 염재로부터 묵화의 기본을 사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다양한 예술적·사회적 활동에 비해 지역작가로서의 한계와 평가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주요어 : 염재 송태회, 사호 송수면, 고암 이응노, 고창 서화, 근대지향적 실경산수

Abstract In the early 20th century, Yeomjae Song Tae-hoe (念齋 宋泰會, 1872-1941), a disciple and onetime adopted son of teacher Song Su-myeon(宋修勉, 1847-1916), moved to Gochang and laid the foundation for Gochang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it can be seen that a full-fledged flow began. Yeomjae Song Tae-hoe was a scholar and calligraph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modern period from Hwasun, Jeollanam-do. He is a person who created the foundation of Gochang calligraphy and painting while working as an educator in Chinese literature, calligraphy, and painting, mainly in his hometown of Hwasun and Gochang, while engaging in creative activities. He was intelligent from a young age and showed an extraordinary talent for calligraphy. At the age of 16, he passed the Jinsa exam (童蒙進士) and became the youngest student to study at Sungkyunkwan. He was active by holding exhibitions nationwide based in Gochang and Jeonju, and was also an educator who fostered younger students by establishing Gochang High School (currently, Gochang Middle and High School) to cultivate national spirit and history. Yeomjae drew strong and healthy landscape paintings under the absolute influence of the painting style of Saho Song Su-myeon, and dealt with various materials of southern school literati paintings such as flowers and birds and four plants.

In particular, he is a representative calligrapher who encompasses the early modern era and the modern era in that he expressed his interest in new cultural artifacts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a modern-oriented realistic landscape based on Korean natural beauty. He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 and contemporary calligraphy and painting. Goam Lee Eung-no (顧菴 李應魯, 1904-1989), a world-renowned painter, learned the basics of ink painting from Yeomjae in his late teens. However, compared to his various artistic and social activities, it is regrettable that he is limited and evaluated as a local writer.

Key words : Yeomjae Song Tae-hoe, Saho Song Su-myeon, Goam Lee Eung-no, Gochang calligraphy and painting, modern-oriented realistic landscape

*학술이사,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화계학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0, 2023 / Revised: August 23,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kdy3019@naver.com

Dept. of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 Korea

I. 서론

호남의 중서부에 위치한 고창의 어원은 산(山)이 높고, 들(野)이 넓다는 의미를 지닌다. 앞바다 또한 넓고 어장이 풍부하다. 이런 연유로 육해의 물산이 풍족하고 훌륭한 인적자산이 잘 형성된 터전이다. 예로부터 고창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방장산의 정기, 드넓은 들판의 농산물 그리고 큰 바다 해산물 덕분이다. 고려 건국 이후 공신들에게 내려진 사전(賜田)이 많았고 후손들이 대거 낙향하여 정착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사로(仕路)를 등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 의식이 투철한 선비들이 은둔자적하는 풍류지가 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고창 서화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며 개별적·독창적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전북보다는 남종문인화로 대변되는 남도 예맥 특히 화순지역과 좀 더 밀접하게 교류하며 예맥을 이어왔다. 남도의 서화맥은 대표적으로 16세기 초반 학포 양팽손, 공재 윤두서, 낙서 윤덕희,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견 등으로 이어지고, 북도의 서화맥은 조선 초 14세기 초반 정읍에서 활동한 영곡 고득중을 시점으로 하여 양곡 소세양, 백석 유집, 창강 조속, 송재 송일중, 호생관 최북, 창암 이삼만, 석경 이정직, 감암 송성용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창과 인연을 맺은 이들의 유적을 살펴볼 때, 학문과 예술적 측면에서 고창의 정체성과 고창 서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형성과 흐름을 이루는데 있어서 표본이 됨과 동시에 촉매제 역할도 하였다. 특히 1910년 국권 피탈로 인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겪게 된 일제강점기는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의 단절기였다. 점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기간으로써 이러한 시기에 문화예술계는 문예사조와 예술창작의 형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환되어 보수성과 근대성이 양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가 문치정책의 일환으로 개최한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진’) 공모전은 풍부한 예술교류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사전(師傅)의 전통은 서서히 상실되고, 현대적 서구 양식과 실경을 융합한 파격적 구도와 개성적 창작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종래의 서화계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한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 1872~1941)는 조선 말기와 근대기의 학자이자 서화가로서 고향인 화순과 고창을 중심으로 한문과 서화 교육

자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며 고창 서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했고, 최연소로 사마시에 합격했으며 숙부인 사호 송수면(沙湖 宋修勉, 1847~1916)에게 서화를 배웠고, 산수화, 사군자, 화점도 등 다양한 화목을 그렸다. 그의 실경산수화에는 20세기 전후로 서양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그의 실학적 풍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적·사회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작가로서의 한계와 평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염재 서화의 연원과 예술경지를 분석하여 그가 서화를 통해 추구했던 심미가치와 고창 서화의 기반 형성에 끼친 영향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念齋 宋太會 서화의 연원

호남 회화는 공재 윤두서, 소치 허련이 남종화의 꽃을 피운 이후 조선 말기부터 국운이 쇠락해가는 격변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구의 사상과 문화가 급속하게 전파되어 문예사조와 예술창작의 형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환되어 보수성과 근대성이 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때 등장한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서 조선 말기~근대기에 활동하며 적벽의 천혜 자연 속에서 문인예술의 예격을 한층 높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자는 안여(顔汝), 호는 사호(沙湖)이며, 만년에는 노호(老湖)라고도 불렸다. 『여산송씨대동보』에 의하면 초시에만 세 번을 합격한 후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서화로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1883년(36세)에는 친형 호은 송금면과 함께 진도 운림산방에 찾아가서 당시 76세인 소치 허련에게 작품창작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는 등 소치와의 교류를 통해 소치의 화법을 배우고 함께 합작한 작품도 남기는 등 그의 화풍은 보통 문인화가의 범주를 넘어선 직업작가 수준의 기예를 보인다.

그의 일생은 회갑 때 그의 종제(從弟)였던 규사 송주면(圭沙 宋宙勉, 1857~1910)의 「사호 삼종형 수면 회갑(沙湖 三從兄 修勉 回甲)」 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덕을 좋아하고 회갑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스스로 즐겼고, 집에는 도서가 많았는데 사평에 살면서 친척모임

인 화수회(花樹會)를 운영하였다.”는 시가 전한다.(宋宙勉, 『沙湖遺稿』, 「新春弧矢六旬初, 好德康寧樂自如. 米虹貴月有圖書, 判識沙村花樹會.」) 또한, 조카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 1872~1942)는 “작은 아버지 송수면은 천성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강건한 성품으로써 세상 일에 간여하지 않았고, 세상에 친분있는 자가 많지 않았으며 작품 또한 많이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宋泰會, 『念齋遺稿』 3卷, “余從父天性狷介, 不于於時教. 世無知者, 墨跡亦未多傳.” p. 58.)

사호는 어려서부터 「고씨화보(顧氏畫譜)」와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 등을 임모하며 부단히 연마하였다. 그의 회화는 당시 화단과는 다른 전통적 화풍을 고집한 묵매와 묵죽을 중심으로 사군자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10폭이나 8폭의 병풍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 외에 모란·포도·우도(牛圖) 뿐만 아니라 산수화까지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고, <화접도십폭병풍(花蝶圖十幅屏風)>과 같이 섬세하고 정교하면서도 사실적 묘사가 뛰어난 호접도(胡蝶圖)를 그렸다. 그의 서체는 추사와 소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서울에 자주 왕래하는 일이 많아 한양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은 <묵매도>이다. 매화는 선비의 굳은 절개와 의리를 상징한다. 추운 겨울 온갖 풍상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옥설(玉雪)과 같은 꽃을 피운다. 매화는 은사(隱士)나 절의(節義)의 지사로 통하기에 옛 시인묵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시나 그림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었다.

전반적으로 흔치 않는 구도를 보인다. 매화의 일부분을 담목으로 초리한 굵은 수간과 가지가 꼬이듯 힘차게 위로 휘어져 뻗어 있다. 하지만 굳은 기개와 절의는 전혀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화려한 매화를 만개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역동성과 생명감을 드러내며 하늘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화제를 보면,

꽃 가운데 高士가 자리잡고 있네.
 천하에 眞山이 없이 流水와 靑山의 경계로구나.
 작은 새 몇 마리가 인연을 맺고 있네.
 (“花中占有高士, 天下生無眞山. 流水靑山境界, 小鳥凡因緣.”)



그림 1. 宋修勉, <墨梅圖>, 47×33cm, 개인소장

Figure 1. Song Su-myeon, <Plum painting drawn with ink>, private collection

사호의 심회에는 고스란히 자연과 더불어 노니는 고사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유수와 청산과 같은 홍중구학(胸中丘壑)이 전제되어 있기에 궁벽진 시골에서도 자오(自娛)하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할 수 있음이다.

(그림 2)는 <화접도 10폭 병풍>이다. 마지막 폭에 “정해년 봄에 사호가 쓰고 그려서 지산성주 함하에게 바친다(丁亥季春 沙湖書寫 呈于芝山城主閣下)”는 관지가 있어 이 작품이 1887년(41세) 음력 3월에 ‘지산성주’에게 그려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나비를 화훼·괴석과 함께 그렸는데, 당시 호남지역에서 ‘송나비’라 불리울 만큼 그의 명성에 걸맞는 각양각색의 나비가 허공을 유평하는 모습을 담아낸 수작이다.

이 그림의 구성은 조선 말기 문인이자 화가로서 ‘남나비’로 일컬어졌던 일호 남계우(一濠 南啓宇, 1811~1888)의 <화접도> 중 붓꽃과 호랑나비가 있는 구성과도 흡사하다. 제화시는 당나라 말기 시인인 정곡(鄭穀, 849-911), 소식(東坡 蘇軾, 1036-1101)과 조선 후기 자하신위(紫霞 申緯, 1769-1845)가 쓴 나비와 관련된 시를 차용하여 정취와 흥취를 더해준다. 여유롭게 날아다니



그림 2. 宋修勉, <花蝶圖十幅屏風>, 紙本彩色, 100.9×2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Figure 2. Song Soo-myeon, <Hwajeopdo 10-panel folding screen>, color painting on paper, National Museum of Korea

는 시원스럽고 넓은 공간감을 주기 위해 배경을 넉넉하게 구성하였다. 각 폭은 괴석과 화초, 7~8 마리의 나비로 구성되어는데, 종류만 해도 30여 가지가 넘고, 실제 나비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린 듯 색채적으로나 형사(形似)적 측면에서도 매우 사실적이다.

제화시에서도 날개의 다채로운 색채에 대해 “한 쌍의 더듬이는 칠사처럼 말렸고, 두 날개에는 금가루가 칠해져 있다.”(“翅輕於粉薄於繪, 長被花牽不自勝.”)고 묘사하고 있다. 제1폭은 괴석과 함께 분홍색 꽃, 그리고 흰나비를 비롯한 여러 마리의 나비가 그려져 있다. 같은 구성에 제2폭은 패랭이와 호랑나비, 제3폭은 붓꽃과 산제비 나무, 노랑나비 등이 그려져 있다. 꽃은 윤곽을 그리고 엷은 채색을 가하였으며 패랭이·빨간 국화·해당화 등 여러 종류이다. 바위는 음영으로 양감과 질감을 음양대대적으로 표현하였다.(권윤희, 『월간 서예문인화』 2021년 5월 통권 235호, p. 121 참조.)

궁벽진 향촌에서 마땅한 스승도 없이 오로지 화보와 고서화를 통해 독학한 실력으로 독창적 심미경지 영역을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회화에는 선비화가의 간원담박(簡遠淡泊)한 정취와 풍류가 여실히 느껴진다. 이후 그의 서화매는 가볍으로 전수되어 조카 송태회(1872~1942)와 아들 송태회(1882~1956)에게 가전되면서 고창 서화매의 근원이 된다.

III. 念齋 서화의 예술심미

이러한 서단의 형성과 흐름이 전개되는 가운데 20

세기 초에 들어서 고창 서화는 송태회(宋泰會, 1872~1941)가 고창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전개하게 된다. 구한말 일본강점기라는 격변기에 활동한 송태회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송궁면(宋宮勉)의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자는 평숙(平淑), 호는 염재(念齋), 염인(念人), 호산(壺山) 등을 썼다. 나비와 사군자로 명성이 높았던 송수면(宋修勉)이 그의 숙부가 된다. 송수면이 호열자(虎列刺)로 3남을 모두 잃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송태회가 송수면에게 양자로 와서 한동안 살았다고 한다.

이후 송수면이 1남 1녀를 낳자 송태회는 다시 본가로 돌아갔으나 송수면의 문하에서 유가적 학습방법인 도제식 교육을 통해 관념적 화보 중심의 서화학습을 받았고, 부친이 운영했던 녹괴서실(綠槐書室)에서 고문을 학습하였고, 동복현감을 지냈던 소아 조성희(小雅 趙性喜, ??)에게 서법과 문장을 습득하여 어려서부터 시문·서화에 능통하였다.

(그림 3)는 염재가 1881년(10세)에 쓴 서첩으로 표지 포함 8쪽이며 발문이 3개 적혀 있다. 여기에는 중국인 상감가(賞鑑家) 석범 진연서(昔凡 陳衍庶)의 찬시와 보정 금명대사의 찬시, 그리고 염재가 그간의 <녹괴서실(綠槐書室)>첩의 보존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다.

“갑신년(1884) 봄 이월에 방문하니 받들다. 한정상



그림 3. 宋泰會, <綠槐書室>, 종이에 먹, 31.3×42.8cm, 1881년. 권광자 소장

Figure 3. Song Tae-hoe, <Nokgoe Seosil>, ink on paper, 1881. Director Kwon Kwang-ja

서(翰正尙書)가 10세 동자의 글을 보여주는데, 성글고 조밀함이 법도에 들어 맞고 옛 맛을 그대로 드러내니 송나라 사대가들의 필력을 얻었더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풍취가 있어 마음에 들었다. 장래에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할 위인이니 어찌 지금 사람이 능히 옛 사람보다 낮지 않겠는가. 십 세 아이의 글. 고희주 석범 진언서 삼가 쓰다.”

(宋泰會, 「綠槐書室帖」, “甲申春二月奉訪。翰正尙書出示十餘童子, 書疏密合度古味盡。然得力宋四家而有。看人風致見而心折。將來讀萬卷書行萬里路, 安見今人之不能過古人耶。十歲童書。古熙州昔凡陳衍庶謹識)

“계미년(1883) 겨울, 민상서 한산장 종목이 정사로 연경에 들어가는데 그에 앞서 편지를 보내와 나에게 명하기를 소대자를 쓰게 하여 장차 중국인 상감에게 논평을 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녹괴서실 4자 또한 그때 쓴 것 중에 한 폭이다. (...) 무자년(1888) 봄, 내가 진사가 될 때 원새개 위정이 평한 바, 필체가 수운하고 팔자가 원숙하다 하였으니 이 또한 금명화상(김보정)이 서첩을 꾸며 원문 녹괴서실을 걸어 보게 하였다.”

(宋泰會, 「綠槐書室帖」, “癸未冬閱尙書翰山丈種默以正使入燕而前期致書于家大人命余書大小字將要論評于偉人賞鑑家也此綠槐書室四字亦其所書中一幅(...) 戊子春余赴進士時遠世凱慰廷所評, 有曰筆姿秀潤蓋以圓熟八字而此亦錦溟和尚粧塗掛本者也。”)

결구에서 다소 서투른 느낌은 들지만 도저히 10세 어린아이가 쓴 글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장법과 유려강건하면서도 균정된 필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기창체를 바탕으로 하고, 왕희지체의 전아(典雅)하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서체미가 드러난다. 엄

재는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10세 때 쓴 글씨가 청대의 최고 권력가였던 원세개(袁世凱, 1859~1916)가 이를 보고 감탄했다는 일화에서 엄재의 천기(天機)와 자질을 짐작할 수 있겠다.

1887년(16세)에 형 재회(在會)와 함께 최연소로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어린 나이에 급제했다는 점에서 ‘동몽진사’로 불렸으며 29세에 박사 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성균관 유학 시절에는 시작(詩作) 경연에서 장원을 자주 하다보니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나 글을 짓고 쓰는 일은 엄재가 거의 전담했다고 전해지며 당시에 시·서·화 삼절로 칭해졌다. 중화민국 대총통을 지낸 원세개(元世凱, 1859~1916)가 귀국할 때 성균관 진사 3인에 포함되어 전송사로 배행했는데, 연경에 들어가 그곳 명사와 문묵(文墨)을 연마하고 1907년에 돌아왔다. 이처럼 일찍이 중국과 일본 탐방 등으로 외국 문물에 밝았으며 진보적 시각이 어우러져 회화 작품의 경향성은 전통양식을 유지하면서도 실경화풍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1909년부터 1910년까지 잠시 『대한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했으나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육영사업에 뜻을 품고 낙향하여 보성군 사립보성학교, 능주군 사립육영학교, 순천군 송광사 사립보명학교 등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금석문을 연구하면서 망국의 한을 달랬다. 문장과 서예에 두루 뛰어나 지역 고승과 문인들의 비문과 현판 등을 많이 써서 영암 도갑사,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구례 친은사 등 전남지방의 유명사찰에 남아있다.

1919년(48세) 3월 고창으로 주거를 옮겼고, 1920년 4월부터(49세) 오산고등보통학교에 한문 교사로 초빙되었는데 당시 교장직무대리로 있던 양태승(梁泰承)과는 사돈지간(양태승의 여동생이 엄재의 자부)이었다. 항상 하얀 한복을 입고 출근하여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일본의 정책에 맞서 조선어와 한문 습자(서예)를 강의하는 등 민족 사상을 고취시켰다. 1922년(51세)에는 양태승과 함께 지역 유지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설립자였던 일본인 기독교 선교사 마스도미(富安在衛門, 1880~1934)에게 학교 명의변경을 건의하여 1922년 6월 3일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성산(聖山) 기슭에 새 학사를 건립하였다. 고창 고보는 민족 사상을 교육시키는 학풍으로 인해 의기있는 타 지역의 학도들이 많이 전입해 와 이후 학생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1922년 제1회 선전의 서부(書部)에 해서로 입선한 후 서예 2회, 사군자 6회 등 총 8회에 걸쳐 서예와 묵매·산수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이후 고창과 전주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서양미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한지와 수묵이라는 동양화 매체를 사용해 스스로 '서예적 추상' 이라고 명명한 독창적인 세계를 펼쳤던 세계적 화가 고암 이응노(顧菴 李應魯, 1904~1989)는 10대 후반에 염재로부터 묵화의 기본을 사사하였고,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 등과는 나이를 떠나 이문회우(以文會友)하였다. 사호 송수면 화풍의 영향을 받은 강인한 필치의 실경산수화에 능하여 <금강산전도(金剛山全圖)> 등을 그렸고, 화조화와 사군자 등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다.

비탈이나 산허리는 입체감이나 표면의 질감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장피마준을 응용하여 묘사하였다. 하단의 나무들은 사실적으로 처리했고, 구도나 작품 속에서 금강산을 유람하는 사람들을 중국식 도포를 입은 신선들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중국 화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근본 바탕에는 사의적 남종화의 정신을 이으면서도 한국적 풍토미의 구현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근대지향적 실경산수의 북종화법 접목을 시도한 실험적 근대풍 산수화를 그렸다.

(그림 5)은 염동설한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묵매도>이다. 고졸(古拙)하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견자(狷者)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진다. 염재는 중국 화보나 당시 유행하던 화가들의 화풍을 타고난 천성의 자질과 노력으로 산수화와 사군자, 화접도 등 다양한 화목에 두루 능했는데, 대부분 사의(寫意)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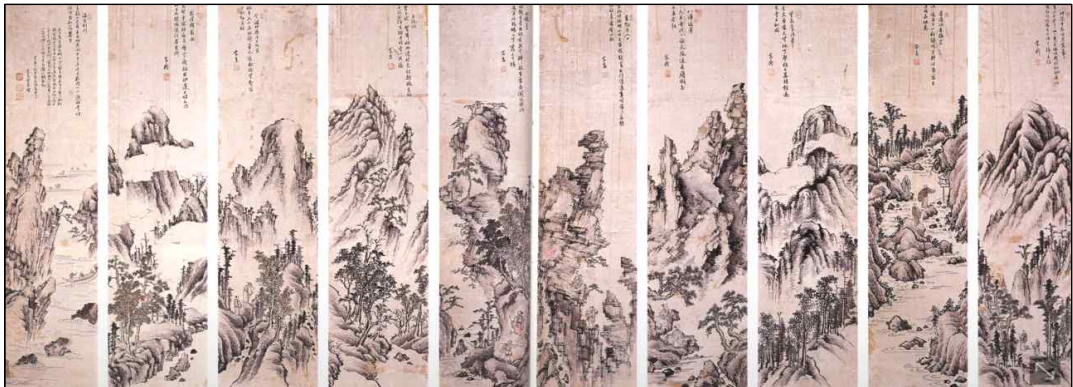


그림 4. 宋泰會, <금강산도10곡병풍>, 종이에 수묵담채, 129×32cm, 1921년, 개인소장
Figure 4. Song Tae-hoe, <Ten Folding Screens of Mt. Geumgang Paintings>, ink and thin coloring on paper, 1921, private collection

(그림 4) <금강산도10곡병(金剛山圖十曲屏)>은 염재가 1910년(39세)에 금강산을 여행했었는데, 1921년(50세)에 허백련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온 사실을 알고 과거 금강산 여행을 상기시키며 그린 작품이다. 염재는 전통적 준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산수화를 그렸다. 단선집준, 미점준, 구름법으로 산세와 산봉우리를 처리했고, 산

시하는 남종문인화 소재에 주목하였다.

구도를 보면, 화면 하단의 어지러이 얽힌 가지들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당하여 위정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비행과 일제 침략에 대한 통분 그리고 이에 대한 내면의 저항 심리를 잘 묘사하는 듯 복잡하다. 화면 하단에는 꼭차게 좌우로 방향을 뒤틀면서 힘차게 비상하듯 비백



그림 5. 宋泰會, <묵매도>, 종이에 수묵, 190×80cm, 1931년, 개인소장
 Figure 5. Song Tae-hoe, <Plum painting drawn with ink>, 1931, privat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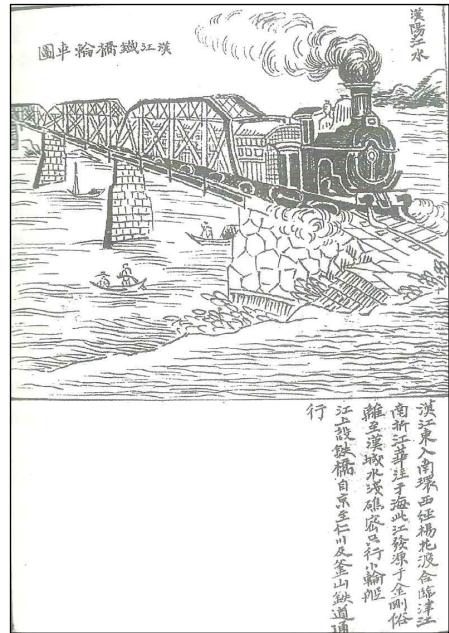


그림 6. 宋泰會, <한강철교윤차도>
 Figure 6. Song Tae-hoe, <Hangang Railroad Bridge Yunchado>

법(飛白法)과 윤묵획(潤墨劃)이 조화를 이룬 굵은 노간(老幹)에 짙은 태점들이 거칠고 투박한 질감을 표현하면서 중간부분부터 상부까지 이어진 빈 여백과 대비를 이룬다.

노간들은 고난을 의미하듯 시련 속에서 부러질 듯 휘어졌지만, 하늘을 향해 크게 뻗은 잔가지와 꽃잎은 백묘법(白描法)으로 처리하여 입체감이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는데, 어떠한 시련과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고고한 은자의 비분강개함을 표상하듯 굳센 절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상단은 실공간보다는 불획지화(不劃之畫)의 여백과 화제시를 통해 오히려 매향과 문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기법과 구도, 여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대담하고도 과격적으로 그려 아미(雅美)를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그림 6) <한강철교윤차도(漢江鐵橋輪車圖)>는 경인철도 개통에 맞춰 세필로 노트에 스케치한 작품인데, 사실 묘사에 치중하였으나 좌측 하단에 화제를 곁들인 점은 전통 문인화가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

특하다.(이선옥, 「문인화가 송태회(1872~1941)의 근대 체험과 실경산수화의 근대적 요소」,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pp. 189~217 참조.)

염재는 즉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는 철저한 법고(法古)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화풍을 주로 구사하였지만 1900년 전후로 서양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근대적 산물에 대한 관심과 지적 호기심으로 기차나 철교, 신식 학교 교사(校舍)도 그렸고, 비행기, 우편, 패종시계 등에 관한 시도 남길 만큼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 사고를 가진 문인화가로서 개성적 심미경지를 발현하였다.

그의 서예작품은 전·예·해·행·초서까지 오체에 두루 통달하여 품격을 갖추고 있고, 많은 분량의 자각시 및 「연화서첩(蓮花書帖)」, 「금석유법첩(金石遺法帖)」, 「척독서법첩(尺牘書法帖)」, 「중산가장첩(鐘山家藏帖)」, 「임지소희첩(臨池小戲帖)」, 「제선생간독(諸先生簡牘)」, 「육서유묵의필첩(六書遺墨意筆帖)」 및 그 외에도 서첩과 화첩 다수를 남겼고, 금석문을 찬서(撰書)하는 등 많은 작품을 남겨 그의 끊임없는 창작 활동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박종석, 『歲寒을 기약하고-

염재 송태회의 삶과 예술』, 굿디코뮤니케이션스, 2010, p. 56.) 문집으로 미간행 필사본 『염재유고(念齋遺稿)』 전7권이 있고, 순천의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일지매(一支梅)」 병풍이 있으며, 전북도립미술관에는 「금강산전도(金剛山全圖)」가 있고, 그림첩인 『염재송태회서첩(念齋宋泰會書帖)』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해진다.

그의 회갑 때 별도의 도장이 찍혀있는 화선지에 위창 오세창(1864~1953), 우석 황종하(1887~1952) 등 당대 대표적 서가들의 작품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에 거장 반열에 들었으며, 수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근·현대 고창 서화의 출발점을 이룬 인물이기도 하다.

IV. 결 론

서화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의 심미적 감성과 작가의 정신세계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예술이다. 이러한 서화예술은 예로부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선비문화의 필수 교양덕목으로 자리 잡아왔는데,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심미를 조금씩 달리 해왔다. 그러므로 당시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된 예술심미를 꾸준히 탐색하여 당대의 철학과 품격을 갖춘 자득(自得)의 예술경지를 구현한 서화는 변화·발전해왔던 것이다.

고창은 남도 서화맥과 연계하여 서화예술이 면면히 이어져온 예향이었다. 그리고 수 많은 서화가들이 배출되거나 이곳에서 교류하였다. 고창 서화는 예로부터 호남 중서부 해안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와 자체적인 문화에 대한 긍지감을 갖고 독자적으로 계승해 왔는데, 전북 보다는 남종문인화로 대변되는 남도 예맥 특히 화순지역과 좀 더 밀접하게 교류하며 서맥의 끈을 이어왔다. 고창 서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 사호 송수면의 제자이자 한때는 양자였던 염재 송태회가 고창으로 이주하며 초석을 다졌고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염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16세에는 진사시에 합격(동몽진사)하여 최연소로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그는 구한말 부정부패의 만연과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여 세상을 등지고 낙향하여 서화로 시름을 달래었다. 고창과 전주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민족정신과 역사를 배양시키기 위해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염재는 사호 송수면 화풍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강건한 필치의 산수화를 그렸고, 화조화와 사군자 등 남종문인화의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다. 특히 한국적 풍토미를 바탕으로 한 근대지향적 실경산수의 구현과 더불어 신문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초창기 근·현대를 아우르는 대표적 서화가로서, 근·현대 고창 서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다양한 예술적·사회적 활동에 비해 제대로 조명 및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작품과 자료를 보완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약해본다.

References

- [1] Song Ju-myeon, 『Sahoyugo(沙湖遺稿)』
- [2] Song Tae-hoe, 『Yeomjaeyugo(念齋遺稿)』
- [3] Kwon Yoon-hee(2021), May 2021 issue of 『Monthly Calligraphic Literary Painting』
- [4] Song Tae-hoe, 『Nokgoeseosilcheob(綠槐書室帖)』
- [5] Lee Seon-ok(2015), 『Song Tae-hoe(1872~1941) and modern elements of realistic landscape painting』, 『Local History and Local Culture』 18
- [6] Park Jong-seok(2010), 『Promising Sehan(歲寒) Yeomjae Song Tae-hoe's Life and Art』, Good D Communications

* 이 논문은 2023년 4월 11일 발간된 『고창미술사』(발행처:고창군)의 「근·현대 고창 서화예술의 목적」(저자:김도영)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